

양정례, 친박연대에 16억 냈다

검찰, 공천헌금 여부 조사
서청원 “양씨 모친에 빌려”

이한정 당선인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1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 당선인이 수차례에 걸쳐 당에 16억여원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공천헌금인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측근인 손상윤(42)씨 선거사무실과 유모 전 사무국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손씨는 서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서 대표에게 양 당선인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박연대와 양 당선인 측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양 당선인이 당에 낸 돈의 규모가 당초 알려진 1억1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6면>

16억원과 관련, 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억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돈은 특별당비가 아니다. 당비가 없어 양 당선인의 어머니인 김순애(58) 건풍건설 대표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이날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48) 당선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자기 소유 코스닥 기업의 태양열에너지사업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400여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다.

검찰은 “태양에너지 사업 자체가 대부분 허위 내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당선인을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이령은 “북한을 개방화시켜 국제에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했다. 정상은 또 향후 3년간 새로 1500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 교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한·일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하려면 젊

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한·일 간 취업관광 사증제도(워

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의 참가

한선을 2009년에 현재의 두 배

간 7200명으로, 2012년에 1만 명

늘리기로 했다.

7일간의 취임 뒤 첫 해외 순방

차친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밤 늦

국했다.

도쿄=최상연 기자

choisy@joongang.co.kr